

서울메트로의 베트남 철도사업 진출 현황



1. 추진배경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는 34년간의 축적된 지하철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공사의 어려운 재정구조를 해소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외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 진출 등 사업다각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오던 중 베트남 중고전동차 수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도시철도법차량관리에의한 규칙 제9조에 의거 내구연한 25년이 도래한 전동차량은 관계법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는 운행할 수 없어 고철이나 유흥지의 놀이문화 및 영업용 등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총 126량 매각, 매각금액 1량당 약 450만원~1,200만원 상당으로 매각되고 있어 자원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선진국의 경우 전동차 내구연한에 대해 특별한 법적 제약조건이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안전진단 및 대수선 등 개보수를 통해 전동차를 35년 내지 40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과 향후 지속적으로 전동차시스템 교체물량이 2015년까지 838량으로 매년 약 100량 발생에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메트로는

중고전동차 베트남 수출을 통하여 자원재활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수익증대, 저개발국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 제공은 물론 축적된 철도기술 노하우를 전파하고,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베트남 도시철도 사업 선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 추진경위 및 성과

서울메트로는 철도분야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사전 포석 차원에서 2004년도에 이미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서울메트로 조례 및 정관을 개정하여 해외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06년 12월에 베트남 현지여건에 정통한 업체인 (주)동림건설턴트와 중고전동차 베트남 수출 진출을 위하여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동 사업을 서울시 주관 “천만상상 오아시스 창의 아이디어”로 제안하여 '07년 3월 7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도시철도분야 최초로 과학기술부산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프로젝트 개발 및 수주교섭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이루었다.



그림 1. 양해각서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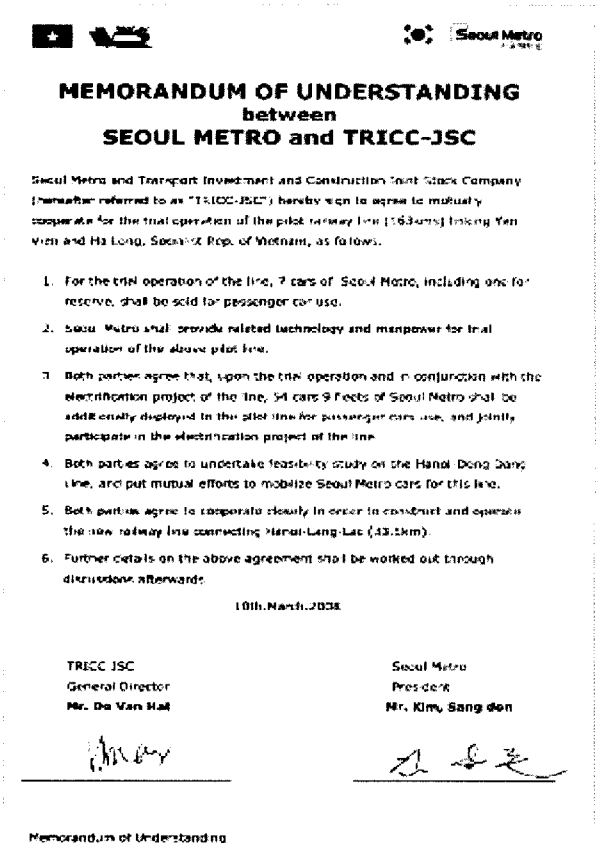


그림 2. 양해각서

2007년 4월에 베트남 철도관계기관(베트남 교통부, 하노이 및 호치민시 등)에 중고전동차 수출 사업제안서를 발송하여 베트남측이 우호적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베트남 현지 여건, 수출가능 노선 확인 및 조사와 베트남 관계기관인 교통부, 도시철도기획단, 철도청 등과 원활한 실무협의를 위해 기술본부장, 기술연구센터장, 신규프로젝트팀장 등 3명

이 하노이와 호치민을 각각 방문하여 중고전동차 수출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브리핑하고 서울메트로의 선진 기술역량과 중고전동차 재활용을 통한 해외사업 진출 의지를 강력하게 인식시켰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07년 5월 9일 서울메트로와 베트남 하노이광역철도기획단 HRB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7년 5월 11일에는 호치민 도시철도기획단과 MOD(회의록)를 작성하는 성과를 달성하여 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동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7년 7월 22일 서울시 교통국에 보고하여 2007년 9월 13일자 서울시장(시장 오세훈) 명의로 하노이 및 호치민 시장에게 베트남 철도 현대화 참여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2007년 8월과 10월에는 베트남 국영철도합자회사인 TRICC-JSC(Transport Investment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사장 및 하노이 부시장이 서울메트로를 방문하여 선진 도시철도 기술과 운영능력을 직접 체험하여 베트남 측의 신뢰와 확신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베트남 진출 프로젝트 중 구체적인 사업의 실행을 위해 2008년 3월 10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베트남 국영철도합자회사인 TRICC-JSC 사장 Do Van HAT과 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은 전동차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실질적으로 베트남 철도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서울메트로 전동차 7량을 베트남의 엔베~하롱베이 노선 163km에 여객열차로 시범 투입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같은 노선에 전동차 54량을 추가로 투입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베트남 국경노선인 하노이~동당 노선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전동차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하노이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 참여에 공동 협력하는 내용에도 뜻을 같이 했다. 베트남 측은 올해 7월경에 하노이~하롱베이 노선에 서울메트로 전동차를 투입하여 시범 운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협약 일정에 따라 양 기관이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서울메트로는 중고전동차를 전면 개수하는 조건으로 수출가격을 신형전동차의 약 1/10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적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2015년까지 교체될 차량은 '08년 126량, '09년 150량, '10년 228량, '11~'15년 334량, 총 838량으로 앞으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약 1,250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3. 사업추진방안

베트남 중고전동차 수출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유지보수 기술이전을 함으로써 국위선양 및 양국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베트남 철도의 궤간, 전기 등 현지어건에 맞도록 전동차를 개조후 제공함으로써 베트남의 철도운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 시설의 바탕위에 바로 적용, 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도시철도 사업을 선점하고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2020년까지 이어지는 베트남 철도 현대화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베트남 전기 철도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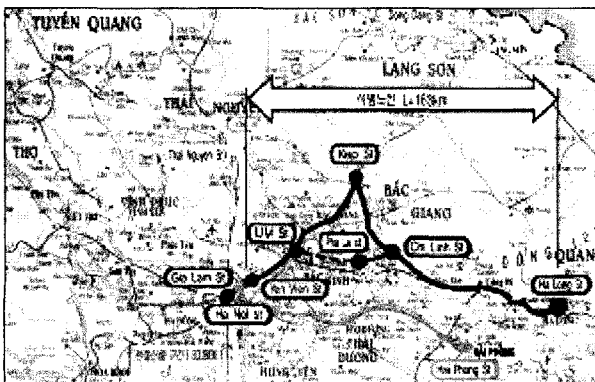
동 사업은 총 3단계로 구상 추진 중으로 1단계는 베트남 하노이(Yen Vien)~Kep~하롱(163km)노선에 객차용으로 개조한 전동차 6량을 시범투입(관광열차 운영형태)하여 운행시간은 편도 2.5시간, 1일 2회 왕복운행으로 하는 것이다. 이 노선은 표준궤도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하롱베이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수요에 비해 하루 1회 운행하는 열차로는 수송수요(하노이~하롱베이 차량이용시 소요시간: 평일 약4.5시간, 주말, 휴일 약8시간 소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지 운영자회사를 설립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려 준비중 이다.

2단계는 “전동차 수출 및 유지보수 기술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1단계 사업의 투입 결과에 따라 기존 철도노선을 단

(시범노선 : 하노이(Yen vien) - Kep - 하롱(단선 163km)

- ※ 운행방안 : 여객운송 및 관광열차(1일 2회 운행)
- 운행시간 : 2.5시간 소요(1일 수회 왕복운행)
- 차량편성 : 7량 1편성(기관차 1, 객차 6)

대형기관차 T-Car T-Car T-Car T-Car T-Car T-Car T-Car전동차



선⇒복선화, 협궤⇒표준궤도, 노후선로⇒개량화 등 전철화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중고전동차 약60량을 순차적으로 확대투입하는 방안이다. 기존선로의 전철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지하철 전동차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각종 제반 설비인 궤도, 전기, 신호, 통신설비 등과 유지보수 기술이전 등이 이루어 질 것이며 이에 따른 대상노선 선정, 전동차제공 물량 및 가격, 제반설비 등은 타당성 조사후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단계사업은 “지하철설계 및 건설을 토대로 지하철운영사업 참여”를 목표로 베트남 철도현대화 계획 2020년에 포함된 도시철도 14개 노선 하노이 8개 노선 174km, 호치민 6개 노선 107km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른 대상노선 선정, 전동차 제공물량 및 가격, 제반설비 등은 타당성 조사 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준비에 여념이 없다.

4. 기대효과

서울메트로에서 추진하는 “베트남 중고전동차 수출사업”은 도시철도 운영기술은 물론 전동차의 자원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수익증대로 사업다각화에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베트남 도시철도 전철화 시스템 사업 선점효과와 다양한 민자사업 참여, 전동차 유지보수 기술수출, 국내 전동차 제작업체와 부품업체 등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동 프로젝트에 추진사업에 알젠티, 도미니카공화국,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8년 2월 21일 방문한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엑포르 갈반)는 당국의 지상 전철화 추진사업과 제2지하철 건설추진에 직접 참여와 기술적 협력 및 서울메트로의 중고전동차 활용에 관하여 서울메트로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와 앞으로의 해외진출 사업은 바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메트로의 중고전동차 개량 수출사업은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으나, 표준궤간 1,435mm을 중전철 10량 편성으로 도시철도 지하철을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인 서울메트로는 최초로 미래도시철도 사업에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미래 세계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에 있어서 실제적인 도시 기반 철도로서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 ☺